

해남 이어 무안서도…AI 확산 초비상

방역당국 오리 3만3000여마리 살처분…해남은 확진 판정

10개 시·도 이동중지명령…‘AI 청정국’ 3개월만에 상실

해남군 산이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이어 무안 오리농장도 감염이 의심돼 축산방역 당국이 살처분에 나섰다. 충남·북, 전북에 이어 전남에서만 두 번째 발생 가능성이 커 전남도는 AI 확산을 우려해 19일부터 20일 자정까지 36시간 가금류 등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무안군 일로읍 육용 오리농장에서 도축장 출하를 위한 검사 중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관과 초동방역 팀을 보내 사육 가축 등 이동을 통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농가 오리 2만1700마리를 살처분 했으며 반경 3km 안에 있는 다른 1개 농가

오리 1만1500마리도 살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AI 감염이 의심됐던 해남 산이면 산란계 농장 닭은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바이러스 유형은 H5N6형으로 최근 충남 천안, 전북 익산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고병원성이었다.

전남도는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제한했다. 방역대별 이동통제 초소를 마련, 가금·축산차량 등 통제를 강화하고 모든 시·군에 가점 소독시설도 확대 설치했다. 또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경지에 주 2회 소독을 하고 농협의 협조를 받아 철새 도래지 인근 시군에 생석회 3000포를 배포해 소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9일 정오부터 20일 자정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명령을 발동해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일시 이동 중지 대상 지역은 철새 이동 경로와 인접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10개 시·도다.

한편 잇따른 H5N6형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난 8월 회복한 ‘AI 청정국 지위’를 3개월만에 다시 상실했다.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최종 살처분 후 3개월간 AI 추가 발생이 없고 바이러스가 순환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입증할 여할 자료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제출해야 한다. 2010년 말부터 AI로 홍역을 치른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가 AI가 재발, 4년 6개월만인 올해 2월이 돼서야 청정국 지위를 되찾았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경기도 이전에 서 AI가 발생해 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석달간 검증 노력을 거친 끝에 8월 마침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장성 軍 사격훈련 실탄 1발

인근 공장 떨어져 ‘화들짝’

장성의 군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던 중 공용화기에서 발사된 실탄 1발이 민간 시설에 떨어져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20일 육군 제31보병사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께 장성군의 한 공장 사무실에 군 공용화기 MG-50의 탄환 도비탄(跳飛彈·총알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 나간 것)이 떨어졌다. 탄환은 MG-50 공용화기 12.7mm 탄두로, 공장 사무실의 지붕을 뚫고 직원의 책상에 박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실은 군 사격장에서 2.8km 떨어져 있으며, 사고 당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군 당국은 발사된 탄환이 고박을 맞춘 뒤 잘못 튀어 공장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31사단 관계자는 “공장 피해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r



중·고교생들도 퇴진 촉구 광주 청소년 단체 ‘1318 광주희망’ 소속 중고등학생들이 20일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청소년 시국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청소년들은“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국민의 삶은 내팽개친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주의의 역적들을 즉각 처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 시국에…장흥군 대규모 포상연수 눈총

통합의학박람회 성공 명목 김성 군수 등 30여명 미국행

‘최순실 사태’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날 31일 막을 내린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미국으로 대규모 포상연수를 떠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인당 경비가 400만원대에 이르는데다, 일정도 관광 위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장인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30여명은 지난 9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미국 서부지역 해외 연수를 떠났다. 1인당 경비는 372만~461만원으로 총 1억16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는 “통합의학박람회 성공 개최에 이바지한 직원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국내 상황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조직위가 박람회 성공 개최의 포상 명분으로 해외 연수를 강행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최순실 사태가 터진 뒤 각종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예정했던 대규모 행사 등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규모 해외 연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여기에 이번 관광 위주로 짜여 있는 연수 일정도 입설에 오르고 있다. 조직위는 방문 기간에 미국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브레이크인, 샌타모니카, 라스베이거스 등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지난 9월 29일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전남 장흥군 안양면 비둘기 일원에서 개막해 10월 31일까지 열렸다.

/장흥=김용기기자·충무취재본부장 kykim@

‘시민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화제의 폐북 기사를

경찰청장 삭제 지시 의혹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는 제목의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에 하트만에도 돌연 삭제된 배경에 이철성 경찰청장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열린 광주 금남로 ‘10만 시국촛불’ 집회에 앞서 광주경찰청은 18일,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협조를 당부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하트만에도 돌연 삭제됐다. 그런데 게시물에 19일 오후 갑작스럽게 삭제되기 전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광주경찰청장 간 전화통화가 있었고, 이후 강 청장이 직원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경찰 내부의 증언이 나왔다.

광주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광주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지난 주말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가 삭제돼 ‘외압설’, ‘자제 검열설’ 등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꼬리를 물었다. 강 광주청장은 이철성의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의 한 간부는 “강 광주청장이 본청장(이철성) 전화를 받고 나서 그런 지시(게시물 삭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촛불집회를 앞두고 광주경찰이 올린 게시물이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경찰청과 청와대 쪽에서 봤을 때 민감한 부분이 있었는 게 보다라”면서 “특히 게시물의 글 중 ‘민주화의 성지’, ‘광주시민 안전은 광주경찰이 지킨다’는 내용이 워싱턴에선 신경 쓰이고 불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강 광주청장도 ‘촛불 집회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잘 하려고 페이스북 북에 글을 띄운 만큼 해당 직원을 나무랄 것까지는 없고, 게시

타임라인 사진



광주지방경찰청
9시간 · 0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19(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선 혼잡으로 지하철 환승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민 문화의 성지~!!
광주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광주경찰청이 지난 19일 열린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에 앞서 18일 공식 페이스북 북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게시물.

물을 삭제하는 선에서 끝내자’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두 분이(이철성·강인철 청장) 통화 후 조치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광주경찰청의 또 다른 관계자도 “본청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이후 조치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 광주청장은 “업무 패턴(집회) 상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다. 해석이 다양할 수 있어 상황이 변하면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광주경찰청이 페이스북 북에 올린 게시물엔 ‘폭력 시위, 불법 시위 엄단’ 등 시민정서를 자극하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19일 광주에서 10만 시국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교통 통제가 있으니 불편해도 양해해달라”는 글과 함께 지난 16일 금남로 집회 당시 ‘국경농단 헌정파괴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현수막 아래 도로를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을 담은 사진 아래 ‘시민 안전을 지켜드립니다’는 자막을 넣은 것을 덧붙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아리 회장 문제 말다툼 중 뜨거운 물 들이대며 선배 위협



광주지방경찰청
9시간 · 0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을 하던 중 물이 끓고 있는 커피포트로 정씨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 ○…같은 동아리 선배배 사이인 최씨와 정씨는 이날 자타 모두가 화장 선임 문제로 말다툼을 했는데, 경찰은 “두 사람이 아직 대학생 신분이고 직접적으로 폭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화해하는 것을 지켜보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2016타경 7859	1	순천시 강서동12, 9층 901호 139.77㎡ [아파트 대합층에있는입차인입실(화장실지킴이)]	아파트	439,000,000 439,000,000
2016타경 8890	1	순천시 풍덕주막길96, 2층 4층 404호 [풍덕동, 금호아파트] 74.88㎡ [최저매각가격은 선형사전행후속행(2016타경50693)부동산거래법, 2차매각기일]가액임]	아파트	95,000,000 66,500,000
2016타경 51719	1	광양시 광양동 용강1길11, 101동 15층 1501호 [창제에비밀아파트] 84.76㎡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2016타경 51771	1	광양시 광동84, 305동 3층 304호 [중동, 성동아파트] 84.96㎡	아파트	108,000,000 108,000,000
2016타경 7316	1	여수시 선원동2길 24 105.4㎡ [여수시 선원동2길 24 105.4㎡]	단독주택	151,547,600 151,547,600
2016타경 7620	2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590 225㎡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590 225㎡]	단독주택	182,582,820 182,582,820
2016타경 7910	2	고흥군 동월면 덕흥리 727-12 341㎡ [고흥군 동월면 덕흥리 727-12 341㎡]	전	46,811,000 46,811,000
2016타경 8098	1	광양시 중동1384-6 287.9㎡ [광양시 중동1384-6 287.9㎡]	단독주택	549,118,800 549,118,800
2016타경 8692	1	여수시 곡동8길 40 44.28㎡ 부속건물 주택 17.37㎡ 광2.64㎡ 지시와 다용도실 1.28㎡ [지시외건물포함]	단독주택	21,492,050 21,492,050
2016타경 8753	1	여수시 문수동 461-1 201.9㎡ [여수시 문수동 461-1 201.9㎡]	단독주택	308,778,000 308,778,000
2016타경 3673	1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841-1 225㎡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841-1 225㎡]	단독주택	3,982,000 3,982,000
2016타경 7439	1	여수시 돌산동 우두리 719-36 2063㎡ [강영희지분212/2063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단독주택	32,224,000 32,224,000
2016타경 7620	3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06 552㎡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06 552㎡]	단독주택	14,904,000 14,904,000
2016타경 3673	1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841-1 225㎡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841-1 225㎡]	단독주택	3,982,000 3,982,000
2016타경 51957	1	여수시 여서동 651 2757㎡ [여수시 여서동 651 2757㎡]	전	82,710,000 82,710,000
2016타경 51955	1	순천시 발랑면 원창리 101-18 610㎡ [순천시 발랑면 원창리 101-18 610㎡]	단독주택	90,432,000 90,432,000
2016타경 52019	1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166-3 390㎡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166-3 390㎡]	단독주택	3,861,000 3,861,000
2016타경 6955	1	여수시 무선동277, 1층 101호 [화장실, 가동] 115.52㎡ [여수시 무선동277, 1층 101호]	단독주택	1,011,000,000 1,011,000,000